

‘프리미어리그 듀오’ 박지성 어제 영국행·이영표 오늘 출국

‘프리미어리그 1호’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8월20일(이하 한국시간) 개막할 2006-2007시즌 잉글랜드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정규리그 준비를 위해 영국으로 향했다. 박지성은 23일 오후 2시55분 네덜란드 항공 866편으로 네덜란드를 거쳐 맨체스터로 향했다. 박지성과 동반 출국하려던 이영표는 그러나 병역서

류 미비로 출국이 하루 지연돼 24일 오후 1시2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907편을 통해 영국 토론크스로 돌아가게 됐다.

2006년 독일월드컵을 마친 뒤 귀국해 한 달여 가족들과 휴식을 가진 박지성과 이영표는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월드컵 소감과 새 시즌을 맞는 각오를 밝혔다.

박지성 “골 욕심 많이 내겠다”

-쉬는 동안 무엇을 했나.
▲아직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쉬는 동안 휴식과 함께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지인들을 만나는데 시간을 많이 썼다.
월드컵을 마치고 4주간 쉬었는데 첫 2주는 운동하고 답답하고 아무 것도 안 했다. 2주 전부터 기초 체력운동 위주로 몸을 만들었다.
-새로운 매니지먼트사(JS리미티드)를 만나게 되는 데.
▲나를 위해 모이고 나만을 위해 일할 사람들이어서 더 좋은 조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운동에 만 전념해서 좋은 모습을 유지하면 된다.
-독일월드컵을 끝내고 남은 아쉬움은.
▲16강에 오르지 못했던 게 가장 아쉽다. 하지만 이번 월드컵에서 원정 첫 승과 함께 원정 월드컵에서도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게 수확이다.



-을 시즌 목표는.
▲지난 시즌보다 더 나은 경기력과 경기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지금까지 보여

줬던 게 나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축구선수로 잘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개인적으로 두 번째 시즌이 더 중요하다. 이번 시즌에서 얼마나 보여주는가에 따라 팀 내 입지가 결정될 것이다.
-보완해야 할 점은.
▲20대 중반의 나이에 기술적인 진보가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체력적인 면에서 더 키워야 한다. 몸싸움에서 이기는 못해도 지지는 말아야 하는 만큼 파워를 키워야 한다.
-결혼 등 개인적인 인생설계는.
▲아직 여자를 만날 기회가 없었다.(웃음) 축구로 발전하는 게 더 빠르겠다고 생각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하지만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는 게 축구 외적인 일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아직 만나는 여자는 없다.

이영표 “월드컵 16강은 꿈이었다”

-월드컵 이후 어떻게 지냈나.
▲2006~2007 시즌을 대비해 충분히 쉬었고 운동도 했다.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독일월드컵에서 아쉬웠던 점은.
▲16강은 현실적으로 꿈이었다. 2002년 4강에 들었지만 그것은 한국 축구의 4강이 아니었다.
-포지션이 바뀐 것 같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나는 왼쪽에서 뛰는 것이 편하다. 하지만 대표팀에서도 오른쪽에서 뛰었듯이 팀이 원하는 포지션에 맞춰야 한다. 아스날에도 애슐리 콜 같은 세계적인 왼쪽 수비수가 있지만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고 있다. 토트넘이 UEFA컵에 나가는 등 경기가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훌륭한 선수가 팀에 많이 올 수록 좋은 일이다.



-월드컵 때 소속 리그에서만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는데.
▲ 잘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

의하지만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토고전 막판 프리킥 찬스에서 불을 들린 상황에 대해 설명해달라.
▲ 벤치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했다.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플레이였지만 당시에는 프랑스와 스위스에 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감이 있었다. 무리하게 하다가 실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논란이 많은 것 같다.
-새 사령탑 펠 베어백 감독에 대한 개인적 의견은.
▲ 베어백 감독이 선수들을 잘 알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현재 대표팀은 아시아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4년마다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대표팀도 중요하지만 한국 축구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파도타기

호주의 맥 패넌이 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빌라봉 프로 서퍼대회에서 시원스럽게 파도를 타고 있다. /AP-연합뉴스

‘비운의 골잡이’ 이동국 “10월쯤 그라운드 복귀”



“10월 중순쯤에는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무릎 십자 인대 수술로 2006 독일월드컵 축구 출전 꿈을 접었던 ‘비운의 골잡이’ 이동국(27·포항·사진)이 K-리그 그라운드에서 다시 뛰는 모습은 오는 10월에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수술을 받은 뒤 재활에 힘쓰다 비자 발급 문제 등으로 일시 귀국했던 이동국은 23일 낮 인천국제공항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아직 재활이 진행 중이며 10월 중순에는 치료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국은 이날 낮 1시35분 대한항공 KE 905편으로 부인 이수진씨와 함께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다시 출국해 스포츠 재활전문 의료기관인 ‘스포렉’에서 막판 재활 치료를 받게 된다.

한국 남자배구 4연패
월드리그서 불가리아에 제

한국 남자배구가 2006 월드리그 국제대회에서 불가리아의 벽에 또 한번 막혔다. 김호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3일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예선리그 D조 불가리아와 홈 2차전에서 0-3(20-25 22-25 21-25)으로 완패했다.
쿠바에 2연패한 한국은 이로써 불가리아와 안방 두 경기까지 모두 내줘 4연패에 빠졌다. 불가리아와 역대 상대전적에서도 지난 1994년 세계선수권대회 때 3-1로 이긴 이후 8연패를 포함해 3승14패로 절대적 열세를 면하지 못했다.
이집트에 2전 전승을 거둔 불가리아는 4연승을 달렸다. 한편 한국은 28일과 30일 이집트, 다음 달 5, 6일 불가리아와 벌이는 원정 4연전에서 첫 승 사냥에 도전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여자축구 北 이겨야 월드컵 출전

아시안컵 오늘 北과 격돌

한국 여자축구가 대표팀이 여자월드컵 출전권을 놓고 북한과 비라봉 글 대결을 벌이게 됐다. 안종관 감독이 이끄는 태극남자 20명은 24일 오후 2시(한국시간) 호주 애들레이드 하인드마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최종전에서 아시아 최강 북한과 4강 진출을 다툰다. 이번 대회는 2007년 중국 여자월드컵 출전권 3.5장이 걸려 있기 때문에 4강 진출에 실패하면 월드컵에 나가지 못한다. 개최국인 호주와 태국, 미얀마, 북한과 함께 B조에 속해 있는 한국은 호주와 첫 경기에서 0-4로 패한 뒤 태국을 11-0으로, 미얀마를 3-1로 꺾어 2승1패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한 조에서 2개 팀이 4강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전에서 북한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태국과 미얀마는 각각 1승2패, 4패로 이미 탈락이 확정됐지만 북한과 호주는 22일 맞대결에서 비겨 2승1무. 특히 약체 태국과 마지막 경기를 남겨놓고 있는 호주의 4강 진출이 유력해졌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한국과 북한은 서로를 넘어야만 4강에 나갈 수 있게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4일(월)
▲전국남녀농부 농구선수권 남중결승(11:50-SBS스포츠)
▲제58회 화랑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개막전(12:00-KBS SKY SPORTS)
▲아시안컵 여자축구(한국-북한)(14:00-KBC)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agencies including Elzi, LG Tower, Hyundai, 21st Century, and Daedeung. Includes contact info, office addresses, and property listings with prices and features.